



오이타 칠석 축제

# 국화와 칼

# 일본

글 \_ 김은준 · 나노정보분석실 · eunjunkim@kisti.re.kr

## Japan

### 1. 일본으로 출발

정말이지 일본에 가게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행운인 것 같다. 98년에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왔지만, 뭔가 뚜렷하게 내 자신을 위해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서 뭔가 해 볼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느 날 내 눈에 들어온 건 동생이 공부하려고 사다놓은 일본어 책과 사전이었다.

마침 동생도 보다 말았고, 나 또한, 선천성 의지박약아인지라 예전에 공부하려다가 포기했었던 일본어 책이었다. 아직 남은 군인정신으로 이번에는 끈질기게 한번 해보자고 다짐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영어공부 시간을 줄이면서 일본어 공부를 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점점 재미가 느껴졌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평소처럼 일본어 책을 들고 다니다가 조교 선생님의 일을 돕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선생님이 내 책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일본 교환학생 시험 공모가 있는데 한번 봐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일본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서 폐기하려고 했다면, 쓰레기통에서 공문서를 다시 꺼내 보여주시면서 말이다.

마감이 3일밖에 안 남아서 그 즉시 서류준비하고, 추천장 받으러 다니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나서, 교환학생 선발시험을 보았다. 작문이 어려워서 떨어진 줄만 알았는데 시험보고 한 달 후, 유학생 관리과에서 전화가 왔다. 합격했으니까 유학생 수속 서류 작성하러 오라는 것이었다. 1등에게는 학비면제 및 생활비 월 8만엔 정도가 나오는데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학비면제라는 특혜는 있었고, 처음으로 외국에 간다는 게 그것도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 너무 기뻐다.

그렇게 해서 2001년 4월에 일본 오이타현의 오이타대학으로 1년간 단기유학을 가게 되었다. 일본행 비행기에서 흘러 나왔던 김광석

의 “이등병의 편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란 구절을 들으며, 이제 다시 시작하리란 마음을 갖고 일본으로 향했다.

## 2. 언어와의 싸움



〈그림 1〉 일본 튜터들과의 교류 모임

일본에 발을 내딛었을 때 처음 마주친 일본인은 공항버스 기사 아저씨였다. 불현듯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부끄러웠다. 갑자기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란 의문도 들었다.

숙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묵는 국제교류회관(국립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기숙사)이었다. 학기가 시작되던 날 지도교수를 만나고 유학생 센터에서 튜터(도우미)를 소개받았다.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고 의문 나는 점은 튜터가 도와준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회화 이상의 질문은 제대로 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리하여, 튜터는 내 선생님이 되었다. 튜터의 이름은 미즈마타 시로우다. 솔직히 이 친구 이름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직도 모르겠다. 헤어지는 날까지도 한자이름과 발음이 어려워서 만날 때마다 잘못 불렀었다. 하야간 수업 때 몰랐던 일본어는 시로우를 붙들고 물어보았고(간혹 뭘 뜻인지 모를 때도 있었음), 전공수업은 그야말로 전쟁 같았다. 교수님이 휘갈겨 쓴 한자를 그려야만했으며, 저녁에는 뜻은 차치하고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조차 몰라서 내가 쓴 문자들을 분해, 해독해야 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연구실 들르고, 기숙사에서 공부하기를 1~2개월 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처음엔 나보다도 일본어를 못하던 외국인인,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쑥 늘어 있는 걸 발견했다. 너무나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분해서 열심히 지켜보았다. 확실한 건, 그 외국인인 공부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여기 저기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았다. 하도 이상해서 어느 날 비결을 물어보니 그 친구 왈. “공부하지 말고 놀러 다녀라, 친구를 만들어서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된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1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회화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때 난 내가 미련해 보였다. 왜 도서관에만 있었는지 후회가 됐다. 그 후 난 시로우와 어울리게 되었고, 놀러 다녔다. 만남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이어서, 시로우의 친구를 알게 되자, 나중에는 건너건너 친구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시로우의 단골식당 주인과 시로우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점장,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일본어 실력도 늘었다. 또, 내가 한국음식을 해주면 시로우는 일본 음식을 해주는 식으로,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자 자연히 자국의 문화에 대한 것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 3. 일본의 유학생 프로그램

우선, 오이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오이타현은 일본의 큐슈지방을 대표하는 후쿠오카현의 동쪽에 위치한 도시다. 오이타의 옛 이름인 ‘토요노쿠니(豊國)’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전체가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현 내 어디서나 양질의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일본의 대표적인 온천왕국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도시인 벳부시 역시 오이타현에 속해있다.

오이타대학은 오이타현에 위치한 국립대학이다. 대부분의 일본 대학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유학생 센터가 있다. 유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해 주고, 곤란한 점이나 의문사항, 숙소 문제를 도와주며, 학습 지도와 아르바이트 알선 및 장학금 지원과 문화교육 등을 행한다.

그 외에도 앞서 얘기 한 튜터(Tutor)제도가 있다. 유학생과 같은 학과의 비슷한 또래 친구를 두어 유학생센터가 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을 도와주는 1:1 선생님 겸 친구를 튜터라 하는데, 참 일본인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튜터를 지원한 학생은 외국인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적지 않은 지원금(2001년 당시, 한달에 만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학생들에게는 매우 선호도가 높은 아르바이트(?)다.

학교 역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학생들에게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고, 방학이나 연휴에 여행 프로그램과 단기 홈 스테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한국인 유학생 선배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유학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부든, 취업이든 영어권 국가보다는 일본을 선택하게 하려는 정부 정책이라고 한다. 최근 영어권 국가 유학생이 증가 추세라니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일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나 국제교류회관 같은 게스트 하우스를 갖춘 곳도 있다. 물가 비싼, 특히 집 값 비싼 일본에서 일반 집과 비교할 때 월세도 싸고, 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도 꽤 괜찮은 게스트 하우스는 매우 인기가 높다. 그래서 숙박기간에 제한이 있고, 입주 희망자도 많다.

또,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단계별 코스까지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나 청강생, 연구원으로 오는 유학생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내가 있던 오이타 대학은 정규학생이 아닌 대학원생들의 가족이 원하면 무료 학습도 가능하게 했다.

#### 4. 일본에서의 생활과 문화

흔히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깨끗하다는 점일 것이다. 정말이지 이 나라는 신기했다. 아침에 되면, 그 많던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말끔히 사라지고 휴지통도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요란스런 환경미화원의 등장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이리 깨끗한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다.

교통질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1년 동안 클래식 소리는 두 번 들어봤고, 운전자가 싸운 것은 차가 너무 많이 부서져서 싸우는 걸 한번 봤을 뿐이다. 그것도 한적한 공터로 가져간 후에 말이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라 그런지 골목골목에서 차가 나오면 몸에 배어 있는 듯 잠시 정차 후 출발하는 그들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부러웠다.

일본의 경우에는 4월과 10월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하나미(벚꽃놀이)와 모미지가리(단풍놀이)가 열리며, 이사철이 된다. 대개 이 시즌이면 각 가정에서 못쓰는 가전제품이나 생활제품을 버린다. 나를 비롯한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에게는 좋은 날이었다.

막상 일본에 도착했을 때 내 방에는 기본 물품만 있지 TV나 기타 가전제품이 없었다. 너무 비싸서 아예 살 엄두를 못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하고 오는 길에 TV, 비디오 등등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자제품의 나라여서 그런지 물품 상태도 양호해 보였기에 친구들을 불러 그것들을 수거해서 사용해 봤다.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쓸만한 물건들이었다. 그 후로는 밤마다 동네 한바퀴를 돌게 되었고, 책이며, 쓸만한 물품을 수거하였다. 그러나 이 행위는 집주인이 물건을 철사 줄로 묶어놓는 바람에 중지하게 됐다. 한 아주머니에게는 들켜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던 기억도 난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탄다.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거리만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버스를 타다가도 자전거로 갈아타는 학생들이 많았다. 나 또한 그 당시 서툰 일본어 유학생을 핑계로 1,000엔 짜게 5,000엔에 구입한 중고 자전거가 있었다. 학교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비가 안 오면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렇게 잘 타고 다녔는데 한 가지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일본은 자전거를 새로 사든지 중고로 사든지 자전거 등록증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렌탈샵(일본은 비디오뿐만 아니라 씨디도 출시 일에 따라 렌탈이 가능하다)에서 CD를 빌려서 나오는데 한 여자가 이곳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아서 경찰과 함께 조사 중이었다. 그 때는 뭐하는지 몰라 그냥 가려하는데 경찰관 하는 말이 등록증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자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자전거 때문에 경찰서에 가다니.

그때에는 유학생 신분의 절도가 이슈여서 나 또한 의심을 받게 됐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자전거 등록증은 자동차처럼 경찰 컴퓨터에 DB화 시킨다. 최초의 주인이 누군지 현재 누구 소유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다행히 전 주인이 컴퓨터에 기제가 안돼 있어서 쉽게 풀려났다. 경찰관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까지 하고는 돌려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인은 대충 물어보기만 했는데 나는 경찰서까지 끌고 가서는 조사한다는 게 외국인 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화도 났었다.

일본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는 개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일본 여행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들의 옷차림을 보면 너무 튼다. 알록달록하고, 웬지 너털거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오래 느끼다 보면 익숙해진다. 오히려 한국인들을 보면 개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똑같은 상표의 옷, 똑같은 느낌, 처음 봐어도 언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차이 때문에 제3국에서 만나도 일본인과 한국인은 쉽게 구별된다고 한다.

내 튜터가 얘기해준 사실 하나! 한국 남자와 일본남자의 구별법은 구레나룻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일본 남자들은 구레나룻이 없는 걸 촌스럽게 여긴다는 것이다. 한국여자와 일본여자는 화장법과 걸음걸이란다. 일본여성을 만나본 분은 다 아시리라. 일본 여성 특유의 오다리 걸음과 화장법을.

일본어를 보면 그들의 국민성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단호한 거절의 표현은 없다. 뭐가 뒷말을 흐리는 회화가 많다. 스미마생가(미안하지만...), 고레와 고마리마스가(이건 곤란한데요...)처럼 격을 차릴 때는 뒷말이 흐려진다. 매우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활방식인 것이다. 헤어질 때도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사(물론, 친한 사이는 제외지만)하며, 언제나

상냥한 미소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과 미안할 정도의 친절을 베푸는 그들. 누군가에게 선물 등을 받았다면, 다시 베풀어야 마음이 놓이고, 어울려 음식을 먹고 마셔도 각자 계산하는 것이 일본인들이다.

그래서, 유학생 선배들은 어울려 먹을 때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일화도 있었다. 한번은 대학원 선배가 연구실 애들과 밥을 먹고 계산할 때였다. 그 선배가 오늘은 한국식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고 계산을 하는 동안 난 음식점 밖을 나갔다. 그 때 일본 애들이 각자 얼마씩 걷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걸 보고는 웃음도 낫지만 무섭기까지 했다. 그들은 이러면 나쁘다며 한사코 돈을 걷어 선배에게 주려하였다. 그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것이다. 또 그만큼 남에게 피해 받는 것 역시 질색을 하리라.

그런 일들을 볼 때 마다 떠오르는 건 일본을 장미와 칼의 나라라고 한 말이다. 일본에서는 혼네(진심)와 타테마에(거짓 마음)란 말이 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면 어느 쪽이 혼네인지 어느 쪽이 타테마에인지 혼네가 결국은 타테마에인지 애매모호함에 빠져들게 될 때가 많다.



〈그림 2〉 만화영화 '이웃집 토토로' 배경마을

이런 애매모호함에서 빠져나가기 좋은 방법은 만화책을 읽는 것이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왕국이라는 애칭만큼 만화를 많이 본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내가 알게 된 한 일본친구의 집에는 아버지만 볼 수 있는 만화전집이 있고, 그것은 아무도 손댈 수 없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만화가 나오면 비디오판으로 출시되고 나중에 극장판으로 출시된다. 자국영화는 헐리우드에 밀려도 애니메이션이 출시되면 거의 대부분 10위 안에 든다. 내용 또한 철학적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한 예반게리온, 공각기동대 같은 작품들.

만화를 좋아해서인지 창의성도 뛰어나다.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존중해주는 것도 창의성에 한 몫 한다. 내가 신청한

수업 중에 인간복지계획이 있었다. 당시 수업의 주제는 5m<sup>3</sup>의 공간을 가정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 수업시간에 내 눈에 비친 모형들은 하나같이 우스워보였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각자 자기가 이렇게 만든 이유를 설명해 나가고, 교수는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들어주고, 함께 문제점을 찾아 고쳐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이라면 장난감을 만드는 거라고 치부해버릴 것들을(잘 만들지 못해 너털거리는 쓰레기와 같았으며, 심지어는 만화책에서 힌트를 얻었다며 달걀모양의 공간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 앞에 두고 교수와 조교가 너무도 진지하게 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그 날 공부하려는 의욕까지 사라지게 만들 만큼 내게는 정신적 충격이었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하찮은(?) 생각까지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일본에 왜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은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이들과 우리의 미래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 비단,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와는 다른 일본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내게는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일본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는 거리에서도 볼 수 있다. 상점 문을 닫는 저녁 8시가 되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여기저기서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부르고, 벼룩시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물품을 팔고 산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복 입는 젊은이들을 보기 힘들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어떤 공식처럼 졸업식 때나 마을의 마츠리(축제), 행사 때에는 유카타 라는 기모노식의 옷을 입는다. 졸업시즌이나 축제시즌이 되면 유카타 판매 팸플렛이 나온다. 마츠리를 할 때면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 찬다. 특히, 7~8월이면 마츠리의 최고 조 시기라서 이 기간에 일본여행을 가면 여러 종류의 마츠리를 많이 볼 수 있다.

내 일본친구는 한국이 아시아의 이탈리아 같다고 한다. 그만큼 열정적이어서 한국이 좋다고 말이다. 내 생각에 일본은 아시아의 영국 같이 조용하다. 그러나 이런 조용한 사람들도 마츠리 기간에는 매우 활기차다.

각각 디자인 해온 유카타를 입고 춤을 추면 나중에는 구경하던 시민들도 서로 어울려 마츠리 춤을 춘다. 8월에 오사카에 가면 열정적인





〈그림 3〉 오사카 전국 마츠리 춤 경연대회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나에게는 그 모습이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일본의 힘이라고 느껴졌다. 마츠리 춤에 유카타를 입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뛰어들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개량한복이 있긴 하지만, 잘 입지 않고, 세대간의 벽은 점점 높아만 가고, 문화의 단절이 느껴지는 한국!

### 5. 일본과 한국

요즘은 텔런트 배용준의 인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국 알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내가 일본에 간 2001년도에는 교과서 왜곡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 이에 대해 얘기하자면 별로 할 말은 없다. 오이타라는 지역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독도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교과서 왜곡과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토론하는 수업시간이 있었는데 거의가 반대 입장이었다(찬성쪽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알 수 없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일본의 교과서가 왜곡됐다는 의견이 많군요. 그럼 반대로 한국과 중국 유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국의 역사가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의 역사연구가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말이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다.

나는 한국학생 몇몇과 1년 동안 오이타 프로축구팀의 서포터즈 및 일반 시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었다. 덕분에 가끔 공짜로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도 하며 축구를 봤었는데, 그들과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느 한 할아버지와 술을 마셨을 때는 내가 돌아서 마시고 두 손으로 따르고 하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일본도

몇 십 년 전에는 예의를 차렸지만 지금 세대는 버릇이 없다"고 그래서 자신은 한국 젊은이가 좋다고 하셨다. 일본사람들이 한국하면, 말하는 것이 예의와 음식이야기 뿐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해 인식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한류열풍이 부는 지금 이 시기가 좋은 때라고 본다. 우리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일본 문화 역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교류를 하는 것이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

### 6. 일본유학 방법

혹, 사비가 아닌 국비로 일본에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해마다 국제 교육 진흥원 (<http://niied.interedu.go.kr>)에서는 세계 각 국으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주는 국비유학생을 선발한다. 항상 2~3월에 시험 공고를 내고 시험에서 합격 발표까지 7~8개월 정도 걸린다.

그 외에 일본 문부성에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일본 문부성 연구 장학생 선발도 비슷한 시기에 공고하며 발표 기간도 비슷하다. 2005년부터는 1차 TEPS 시험 점수와 2차 일본어(일본 주관이며, 2006년부터는 EJU(일본유학시험)로 대체)시험, 3차 일본 주관의 면접을 보게 된다. 또, 지방에서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목적의 장학생 선발시험을 보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행하는 한일 이공계 유학 프로그램도 있다. 도쿄대, 도쿄공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기타 유학 관련 기관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http://www.jasso.or.kr>), 재일한국인 유학생협회(<http://www.ksjp.org>), 한국일본 유학인 연합회(<http://www.kjsf.or.kr>), (사)교리츠 국제교류 장학재단(<http://www.kyoritsu.org>)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비로 간다고 해도 대학마다 특히 몇몇 국립대의 경우에는 유학생에게 학비 전액면제 및 반액 면제도 시행하는 곳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해외견문록

